



신구범도 가세한 4.3 흠집내기, 대체 왜?

신구범 전 지사 "제주4.3은 남로당 폭동"이라면서 토론회 갖자 제안

제주도내 보수단체에서 활동 중인 몇 명의 인사들이 제주4.3 사건을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혈투기에 나섰다.

제주4.3 희생자 위령제가 진행되는 무렵에 매년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이들 세력은 올해도 변함없다. 특히 올해는 4.3 70주년 기념사업에 항거라도 하겠다는 듯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전면전에 나섰다.

신구범 전 지사를 비롯한 20명의 인사들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을 중단하고 제주4.3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과거 도지사 시절에 제가 가장 먼저 4.3 합동위령제를 지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열심히 해 온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이 자리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지사는 제주4.3의 성격을 두고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제주4.3 진상조사 정부 보고서엔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여서 이를 먼저 규명하지 않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건 허상"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신 전 지사의 발언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1994년 도지사 재임시절,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4.3 사건에 대한 각종 제사를 하나로 모아 제를 지낼 수 있게 했다. 이 때부터 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업적을 이뤘던,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했던 전직 도지사가 이 제와서 왜 정반대의 입장에 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위기 때부터 보수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하자,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곳곳에선 "변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가 출몰했다.

특히 그는 정치인들이 4.3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4.3의 정의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4.3 사건이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4.3특별법 개정을 중단하고 4.3에 대한 성격을 규명짓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 저항'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제주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전 지사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기자단 측에선 "기자회견문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일었다. 개정안 내용에선 신 전 지사가 언급한 문장도 있지만 무장대(남로당)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다. 신 전 지사가 한 쪽만 강조해서 작성한 기자회견문 자체가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 전 지사는 "350명의 무장대가 12곳의 경찰지서를 습격한 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가. 이걸 민중봉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래서 토론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오히려 맞받아쳤다.

토론회 얘기로 흘러가자, 다시 기자단 측에선 "토론회를 통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신 전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신 전 지사는 "그간 제주에선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없었다. 토론회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서로의 논점을 정의해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4.3의 성격 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토론회일 뿐"이라고 말을 돌렸다.

토론회를 통해 4.3의 성격을 규명하자고 해놓고선, 정작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규명된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의엔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답변을 계속 피하는 발언으로 논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승복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무마했다.

그러면서 신 전 지사는 "일부에선 4.3에 다시 흠집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흠집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올해는 70주년의 해다. 현 제주도지사도 이를 만천하에 알리고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상에선 "저희도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매년 같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 위패봉안소.

은 문제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점이 그렇다.

게다가 이미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9일에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신 전 지사가 속해있는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4.3특별법 개정만큼은 여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신 전 지사가 당론을 반하는 기자회견에 나서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심지어 '탈당'을 권유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지사는 "당이 제게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며 "당에서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데 어제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왔다.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으로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공식 결론을 냈던 4.3진상조사 보고서'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신 전 지사는 "보고서엔 4.3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자신들을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이라고 명명했다.

신 전 지사를 포함해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이동해 제주4.3정립유족회 회장, 홍석표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정문 공학박사, 문대탄 전 제주일보 상임논설위원, 강원현 (사)3.1정신보급운동연합 제주지역본부장, 장승홍 전 언론인, 이승학 전 중등교감, 양원갑 전 육군 준위, 김승필 전 주민자치위원장, 강성훈 전 육군 중령, 연극인 이광후, 김성석 4.3유족, 고영석 호우회원, 오을탁 자유논객연합 상임위원,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등이 속해 있다.

[김명현 기자]

NewsJeju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탈당 고민 원 지사, 통합엔 여전히 "논의해봐야"

15일, 제주도청 도지사실서 유승민+정병국과 긴급 회동 가져



▲좌측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

원희룡 지사 "나간다고 한 적 없다"지 만... "상황 어렵다고 합치는 것도..." 유승민 대표 "통합에 대해 얘기만 나눴을 뿐, 거취 확정 전혀 없다" 정병국 전 대표 "원 지사, 탈당 안 할 것" 확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또 원 지사와 유독 친하다고 알려진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 3인이 15일 모여 긴급 회동을 가졌다.

당초 유승민 대표는 오는 19일에 일정을 잡고 제주도를 방문해 원 지사와 얘기를 나눌 예정이었으나 이날 긴급히 일정을 변경해 제주도로 내려와 오후 4시에 만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원희룡 지사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나서 만류하러 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를 끝내고 나온 유승민 대표는 "탈당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오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정병국 전 대표 또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고, 그런 차원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고 했다"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니 탈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희룡 지사도 3자 회동 뒤 도청 기자

실로 들러 입장 표명을 했다.

원 지사는 "(두 분은)통합에 대해 내부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다"며 "제가 주문한 건, 야권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견제 축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서로 친해서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고민의 출발점은 비슷한데 보족한 해법으로 결론내진 못했다"며 통합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통합될 세력에 합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이게 당장 다가온 지방선거나 당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며 "오늘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 자신과 주변인들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결국엔 도민의 뜻,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어디에 있어야만 미래에 뜻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탈당도, 합류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재차 시사했다.

또한 원 지사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야권 끼리의 경쟁 이전에 1대 1 선거연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며 "그게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그걸 미루고 야당끼리 이권 빼앗기에 매몰되면 여당에게 이익을 갖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뿐이다. 그걸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원 지사는 "오늘 진전된 결론이 나올 순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함을 전했다.

원희룡 지사, 무소속으로 재선 출마?

원희룡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해 올해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10일 오후 6시 18분, FM 라디오 프로그램인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향후 출마 방향에 대한 '확인'이 나왔다.

이날 대담엔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 지난 10일 원희룡 지사를 직접 만났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정두언 전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오늘(10일) 만났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담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그러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제주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전 의원은 "제가 확인을 해봤다"며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은 "탈당한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다"는 소식과 함께 "경기지사를 할 사람이 없어 홍준표 대표가 (남 지사를)공천할 것"이라고 확인에 찬 발언까지 덧붙였다.

이에 원 지사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기류에 그대로 편승할 것이냐의 여부가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의 선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문대림 혹은 김우남)과 자유한국당(김방훈), 신당(바른정당+국민의당, ?), 무소속(원희룡)의 4파전 선거로 치러진다. 치열한 선거구도가 예상된다.

[김명현 기자]

NewsJeju
www.newsjeju.net
뉴스제주

04 원희룡 지사, 자유한국당 복당 '거부'... 통합도 '글썸'

07 그룹 2PM, 영화배우 박도원 제주 홍보대사로 위촉



10 제주도 2018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432억원 투자

11 이상순 서귀포시장, "서랍속 민원 공식화해 처리해야"

12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진상조사도 이뤄질까

13 2년만에 또... 제주공항 '폭설 악몽'

14 유독한 '미세 플라스틱', 제주도 밥상 오를까

16 이 교육감, 연일 계속되는 의혹에 골머리

18 바둑기사 이세돌, 제주서 커제 상대로 승리

19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 지역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

20 빗물+페인트 섞인 폐수, 서귀포항에 버려져

21 20대 실종 여성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NewsJeju
www.newsjeju.net
뉴스제주

구독신청 (064) 747-1188

제 98 호 2018년 1월 24일자 / 값 2,000원

발행인 남우엽 / 편집인 남우엽 / 인쇄인 현재오 발행처 뉴스제주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 13길12 도남수선화상가 다동 407호

전 화 064-747-1187~8 / 팩스 064-745-4569

메일 newsjeju@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newsjeju.ne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른 등록 : 제주 다-0109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희룡 지사, 자유한국당 복당 '거부'... 통합도 '글세'

CBS 라디오 대담에 출연 "한국당, 보수 개혁? 아직 한참 멀어" 작심 비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자신이 속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식견을 드러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직접 충분히 내비쳤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김현정 앵커로부터 먼저 최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원 지사는 "(복당할 것이라는) 미리 듣고 있었고 예상도 했지만 전 고민이 더 깊다"며 "새누리당을 나왔을 때는 박근혜 정권의 물염치에 대해, 소위 보수라는 정치 세력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봐서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근데 지금 복당하면 그게 되는 것이냐를 봤을 때, 물론 들어가서 '내가 만들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국민들이 받은 상처나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더니 원 지사는 작심하고 "현재 한국당이 국정 의 중심을 잡아주고 제대로 된 견제 역할, 보수정치의 중심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겠나라는 부분에서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그렇다면 한국당 복당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확답을 청하자, 원 지사는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단순히 선거를 치르기 위

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던 건데..."라며 한숨을 토했다.

그러자 김 앵커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통합 문제를 꺼내들었다.

원 지사는 통합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바른정당)세력이 많이 위축돼 고비에 서 있는 건 맞지만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또 다른 문제"라며 "서로 공통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도 많은데 충분한 구성원들 간의 공유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뚜렷이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원 지사는 "정치적 상황에 어렵다해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통합주의라면 그것대로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선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 발생할 폭풍우를 헤쳐나갈 지속성과 확장성이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즉, 확실한 명분과 방향성 없이 단순히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합치고 나면,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통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자, 김 앵커는 "탈당을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재 통합이 일부 분들에게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정치적인 동지와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선택으로 책임져야 하기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앵커가 재차 "탈당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원 지사는 "상황을 본다는 것보다 고민하는 분들에 따라 생각이 갈리기 마련"이라며 "단순히 유불리에 따라 당을 오가는 그런 무게로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당을 하더라도 남경필 지사의 길을 가진 않겠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김 앵커가 발언하자,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이 중심을 잡으려면 야당의 견제가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버리는 모습이 없다. 희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현 모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러한 근본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11일)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확인한 건, 이러한 원희룡 지사의 생각을 미리 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명현 기자]

문대림 청와대 비서관, 31일 사퇴 후 제주로



▲문대림 청와대 비서관. 오는 1월 31일에 비서관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오는 1월 31일에 비서관직을 사퇴한다고 전했다.

문대림 비서관은 "예정보다 일찍 사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며 "사표가 수리

되는대로 바로 제주에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기간은 대략 2~3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 비서관의 사퇴는 올해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하기 위함이다. 이미 앞서 문 비서관은 지난해 말, 제주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 둔 상태였다.

당초 문 비서관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 13일께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비서관은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는 4월 중에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당내 제주도지사 후보엔 문대림 비서관을 비롯해 김우남 도당위원장과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의장, 강기탁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과 접촉한 바가 있느냐"는 물음엔 "잠깐씩 얼굴을 비춘 적은 간혹 있지만 아직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다"며 "아직 공직자

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내려가면 차후 일정이나 각오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비서관은 사퇴서가 수리되는 2월 초쯤에 제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김명현 기자]

NewsJeju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홍준표 대표 "당 혁신 방향 싫으면 오지마라"

원희룡 지사와 관련된 질문 쏟아지자 "복당 선택은 본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복당 가능성을 겨냥해 "당의 혁신 방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안 오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19일 제주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의 신년인사회에 참가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 지사의 복당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와의 만남 성사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당 사람을 만나면 정치공작으로 오해를 받는다. 남경필도 탈당 후에, 복당을 하겠다고 한 후에 전화를 한 것"이라며 원 지사와 거리를 뒀다.

다른 자치단체장의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자, 홍 대표는 "누구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다. 생각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길래 한 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홍 대표는 "복당하는 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불출마 조건 복당 발언도 원 지사를 겨냥한 말이 아니고 모든 결정권은 당에 있다"며 "남 지사가 입당할 때도 당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대표는 복당 설득을 위해 비공개 라인으로 대화라도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당의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 일을 하나, 그러면 정치공작이라고 야단치고 난리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단 측에선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보수혁신'과 자유한국당의 혁신에 대한 차이를 물었다. 이에 홍 대표는 "우리 당의 혁신이 불만족스럽다면 오지 마라. 본인 기준으로 혁

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안 오면 그만"이라며 원 지사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재고의 가치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말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그건 본인 생각이다. 우리는 연대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색으로 민주당과 승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지금 3, 4등 미니정당이 모여서 2등하겠다고 하는데 선거에 2등이 어딴냐. 둘이 합쳐도 7등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 서도 홍 대표는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주공약을 만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외에도 홍 대표는 강정구상권 철회 결정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긴 결정이었다"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불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방훈 위원장이 이를 옹호한 것을 두고선 "제주도 특성에 맞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올해 제주4.3 70주년 희생자추념식 행사 참가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탄핵 대선을 기준으로 선거를 판단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에 기자단에서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대표는 "그걸 알면 제가 정치를 하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아군이었던 원 지사 향해 날 세운 김 방훈

한 때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산하에서 정무부지사로 부임해 한술밥을 먹었던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원 지사를 향해 날선 발톱을 드러냈다.

김방훈 도당위원장은 19일 미래컨벤

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의 신년인사회에서 "글 머리와 일 머리는 다르다"며 원 지사를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앞서 말한 홍준표 대표를 두고선 "검사 시절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오신 분"이라고 칭송하면서 "과거 모래시계 때문에 집에 일찍 귀가했었을 때가 행복했었다고 지금도 아내에게 얘기하곤 한다"고 추켜 세웠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라고 묘사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가상화폐 정책과 대책없는 대북 화해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이어 김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칼을 겨눴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이 이런 말을 한다"며 "글 머리와 일 머리는 다르다. 사람이 똑똑하다 해서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행정은 소통이다. 가슴으로,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열정이 없는 지식은 도민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외자유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 도민들은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 스트레스를 받고 밖에 나오면 교통지옥이라면서 대책없는 행정에 불만 투성"이라며 "행복주택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이 모든 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혹평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은 존립가치가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데 제주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이번 6.13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내세울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당에선 김 위원장을 전략공천할지, 다른 후보들과 함께 당내 경선을 치러 후보자를 정할지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김방훈 위원장을 필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정을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도지사 후보로 김 위원장을 낙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김명현 기자]

NewsJeju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원 지사, 민원해결 또 강조... 선거 앞둔 행보?

원희룡 지사, 주간정책회의서 민원처리 제대로 안 하면 '감찰대상' 경고



▲15일 개최한 주간정책회의에서 민원업무 해결을 또 다시 강조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행정의 민원처리 업무 수행에 대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시 감찰에 나서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최근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회의 때마

다 모든 부서에 민원처리 업무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연이어 강조해왔다.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도 원 지사는 상반기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를 주문하면서 민원처리를 확실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부서에선 '왜 자주 독촉하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과다한 업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누적돼 있는 민원에 대해선 그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감찰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처리 기한 내에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기한 만료시점에야 봐서 아주 형식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보완요구를 내는 사례들이 간간히 발생되고 있다"며 "보완요구를 할 거라면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한 즉시 해야지 처리기간을 다 보내놓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는 경우가 감찰대상"이라며 "그간 잘못

된 관례나 편법적인 요령으로 방치되는 민원들이 있는지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을 해달라"고 청렴감찰단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부서간 '대화행정'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계 단위의 부서에서 1주에 최소 1~2번 이상 공식적인 대화를 가져야 함에도 바쁘다거나 현안에 쫓겨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실·국장들은 다시 한 번 새롭게 파악해서 이 기회에 대화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현 기자]

제주도민안전실장에 유종성, 제주시 부시장에 고길림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상반기 정기 인사 총 529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에 유종성, 제주시 부시장에 고길림 지방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상반기 1월 12일자 정기인사 발령사항을 예고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5급 이상 190명, 6급 이하 339명 등 총 529명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6기 제주도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인사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실국 과장급 인사를 살펴보면 도민안전실장에 유종성, 농업기술원장에 이광석, 특별자치행정국장에 이승찬, 관광국

장에 양기철,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에 이양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에 정대천,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상하수도본부장에 강창석, 세계유산본부장에 김창조, 감사위 사무국장에 강명삼, 제주시 부시장 직무대리에 고길림 지방서기관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총 직급승진 인원 133명 중 54.9%인 73명이 5+2 핵심프로젝트 추진부서이며, 기타 실국은 45.1%인 60명이다. 직렬별 승진인원도 지원부서보다 현업부서를 배려함으로써 행정직보다 기타 직렬의 승진인원을 더 많이 배분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

는 교통항공국(항공제외)에서는 4급승진 1명, 5급승진 1명, 6급승진 2명, 과장급 직위승진 1명, 미의결 담당직무대리 1명 등 6명에 대해 승진 임용했다.

또한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를 원칙으로 하는 민선6기 인사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견간부 여성공직자를 현안부서 주요보직에 전진 배치했으며,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전환되는 5급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행정직 15명 중 47%인 7명이 중견관리자로 승진 의결됐다.

실국장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59년 상반기 출생 고위공무원들의 일선 용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직위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에 대해 최소 한으로 보직이동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는 현장 중심의 성과창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인사상 우대해 나가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성과유선대상자 선발 과정을 통해 도민행복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특별한 성과가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길홍 기자]

제주의 지방자치 수준, 도민 25%만 높아

제주자치도, 지방분권 개헌 여론조사 실시... 73%가 '헌법에 지위 보장돼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제주도민 25%만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수준이 높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6%는 낮다고 봤으며, 49%의 사람들은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보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33.2%)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23.4%)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4%에 달하는 도민이 '보통'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아직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 제주자치도는 이 수치를 긍정적

인 답변과 합산해 '76.6%의 도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34.6%의 사람들이 낮다고 봤고, 절반 이상인 54.4%가 '보통'으로 대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정책기조를 밝힌 대목에서 보면, 이러한 낮은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향후 제주자치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선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47.6%로 조사돼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12.9%)보다 훨씬 높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압도적이었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19.8%에 불과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이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인지한 도민들의 답변으로 읽힌다.

특히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제주의 특별법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20.4%)고 답했다. 이어 ▲도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14.5%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 14.5%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 11.6% ▲공무원, 도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 8.7%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는데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대 1 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명현 기자]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결국 해산

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에서 운영되던 매점, 철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1990년에 창설한 관리소 내 후생복지회를 결국 해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내 3곳 지점에서 운영 중이던 모든 매점이 철수된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지난 10일 해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결국 해산이 결정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1990년에 공원 직원을 당연직 회원으로 두고 '후생복지회'를 구성해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어리목에 매점을 꾸리고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현재 후생복지회 회원 74명 중 64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직원이며, 나머지 10명은 매점 운영을 위해 복지회에서 고용한 인력이다. 10일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이 10명의 직원은 자동 해고된다.

그간 후생복지회가 운영하던 매점에선 컵라면과 삼다수, 아이젠, 초코파이, 우유 등을 탐방객들에게 판매해 왔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을 통해 매점요원(10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렇다보니 매출이 부족해지게 되면 매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용불안을 느낀 매점 직원들은 후생복지회가 자신들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실질적 지휘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8일에 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제주자치도가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자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후생복지회는 최저시급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해선 정산 후 지급키로 합의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후

생복지회 측은 "노조가 현행 일당제에서 월급제 및 호봉제로 전환해 각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매점 수익구조상 이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후생복지회가 전적으로 매점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여서 수익금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조차 노조 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후생복지회는 "매점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난해 2400만 원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회원에게 전가되고 있어 경영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했다"며 "누적돼 가는 적자를 막을 길이 없어 부득불 해산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경찬 후생복지회 위원장은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매점이 폐쇄하게 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생복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 이후 매출이 38.2% 감소했다. 이에 경영개선 교섭을 제의했으나 노조 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회원들의 부채부담 증가율이 올라가 위기감이 고조됐다"며 "지구책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이뤄질 것 같지 않은 것이 해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후생복지회는 향후 별도 청산인을 지정해 현재 남아있는 현물과 잔여재산을 정리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계속된 임금체불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후생복지회를 해산시켜 근로자들의 요구를 원천봉쇄하려는 토사구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후생복지회는 10일 오후 4시 정기총회를 열어 회원 74명 중 3/4 이상이 해산에 동의를 했다. 이 결정으로 한라산에서 매점이 모두 철수하게 됐다.

[김명현 기자]

그룹 2PM, 영화배우 곽도원 제주 홍보대사로 위촉

원희룡 지사 "4·3의 세계화와 제주 위상 높이기 위해 앞장서 달라"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성공 개최와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KPOP 스타 2PM과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을 제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이들은 감귤 등 제주도 특산물 홍보를 진행하며 포스터, 인쇄물 등 도정 홍보물 모델 활동과 함께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0일 오후 4시 여의도 서울본부 사무



▲인기 한류스타 2PM과 영화배우 곽도원이 제주 홍보대사로 나선다.

실에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2PM멤버 JUN. K(본명 김민준), 니쿤(Nichkhun), 우영(본명 장우영), 준호(본명 이준호), 찬성(본명 황찬성)이 참

석했다.

그룹 2PM은 2020년 1월 9일까지 2년 동안 제주 홍보대사로 활동을 이어간다. 2PM은 일본, 중국, 아시아 등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류 스타로 가수,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배우 곽도원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곽도원 씨는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달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 분투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곽철우 역을 맡아 개봉 18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청정과 공존의 섬 제주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감귤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홍보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道감사위원장에 양석완 前 제대 행정대학원장 내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양석완 前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내정했다.

양석완 내정자는 1952년생으로 제주시 용담1동에서 태어나 제주제일고와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MBC제주문화방송에서 보도부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제주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3년간 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동안 법정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분쟁전문위원장과 분양가심사위원장, 교육소청심사위원장,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제주자치도는 감사위원장을 내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석완 내정자가 인사청문을 거쳐 감사위원장에 임명되면, 제주자치도는 세부

적인 감사기준을 정하고 그간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제주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청문결과를 원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명현 기자]

하수도사용료 등 지방공공요금 7종, 올해 인상?



항목	단위	2017년	2018년	변동률
하수도 사용료	1인당 월	1,150	1,200	4.3%
쓰레기종량제봉투	1인당 월	1,150	1,200	4.3%
도시가스	1인당 월	1,150	1,200	4.3%
상수도 사용료	1인당 월	1,150	1,200	4.3%
하수종말처리장	1인당 월	1,150	1,200	4.3%
하수처리장	1인당 월	1,150	1,200	4.3%
하수처리장	1인당 월	1,150	1,200	4.3%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에 지방공공요금을 게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를 한 달여 앞둔 지난 11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월 16일 밝혔다.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동향 파악에 나선다.

현장점검에는 행정시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물가점검반'이 편성되며, 식당과 편의점, 이·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제도활동을 추진한다.

점검 기간 중 전통시장에선 성수품을 할인판매하고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에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시장조사에 나선 데이터를 도홈페이지 물가정보란에 게시한다. 게시되는 가격 정보는 지방공공요금 7종과 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가격 10종이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소비자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7종의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사용료,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시가스료 등이 있다.

상수도 사용료는 1㎡당 평균요금으로 현재 819.3원이다. 지난해 7월 772.3원에서 47원(5.74%)이 올랐다.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374.3원으로 지난 2016년 6월에 인상된 이후 계속 동결 중이다. 그 이전엔 328.9원이었으며, 2013년 10월까지 264원이었다.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200원(카드 1150원)이며, 택시 요금은 2800원(중형, 기본 2km)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대중교통체제가 변경되면서 제주도 전 지역을 1200원으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가 공언한 만큼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택시 요금은 2013년 7월 이후로 4년 넘게 동결 중이다. 2013년 6월까지 2200원이었다.

정화조 청소료는 100ℓ 기준으로 2011년 1월까지 1140원이었으며, 그해 2월에 140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7년 동안 동결

중에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0ℓ 기준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현재 7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지역에선 400원이었다가 7월에 동지역과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그 이전까진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달랐다. 2014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은 500원(동지역 기준, 읍면지역은 350원)이었다.

7종의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잦은 인상을 보였던 품목은 도시가스다.

현재 도시가스는 아이파크 등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에 LPG로 보급되고 있으며, LNG 인수기지가 완공되면 지역단위로 공급될 예정이다. 가격은 현재 1㎡당 도매가 1126.75원, 소매가 1386.15원이다. 이 가격은 지난해 9월에 인상된 수치며, 2017년 8월까지 1006.75원, 1266.15원이었다. 모두 120원씩 10% 넘게 올랐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그 성격상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가격이 내려갈 때도 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1126.75원, 소매가는 1386.15원으로 현재와 같았다.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에선 7종의 공공요금 가운데 요금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하수도요금'을 지목했다.

하나 관련 부서에선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가 진행되면 하반기 중에 1~2개 품목에서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내 물가지수와 기타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꼭 인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보였다.

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물가대책소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산업별 가격과급효과를 고려해 사전심사에 나서게 되며, 만일 지방공공요금이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물가 인상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생필품 물가정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다. 오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내 '공공요금동향'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기자]

도내 제조업체 절반, 올해 사업계획 "공격적"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최근 도내 104개 제조업체의 응답을 중심으로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BSI(기업경기전망지수, 기준치=100)는 112P로 2016년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채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조달여건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자금 조달 여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기준치인 100P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감경기(112p)에 대한 응답 업체 분포를 보면 2018년 1/4분기 경기를 '호전'으로 전망한 업체는 37개(35.6%),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개(40.4%), '악화'를 예상한 업체는 25개(24.0%)로 나타났다.

매출액(115p)을 '호전'으로 전망한 업체는 39개(37.9%),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0개(38.8%), '악화'를 예상한 업체는 24개(23.3%)로 드러났다.

영업이익(110p)에서 '호전'으로 전망한 업체는 35개(34.0%),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3개(41.7%), '악화'를 예상한 업체는 25개(24.3%)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여건(97p)에서 '호전'으로 전망한 업체는 21개(20.6%),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7개(55.9%), '악화'를 예상한 업체는 24개(23.5%)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은 2017년에 비해 어떠한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올해와 비슷(49.0%)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호전(29.6%)', '악화(21.4%)'순으로 응답했다.

2018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달라진 노동환경(31.7%)',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29.5%)', '가계부채(19.7%)', '반기업정서(5.5%)', '에너지믹스(전기요금 등)변화(5.5%)'순으로 응답해 도내 기업들이 달라지는 노동환경과 금리변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 사드 보복(32.4%)', '환율변동(21.4%)',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16.5%)', '美中중과 통상마찰(13.7%)', '북핵 리스크(13.2%)'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다가오는 2018년 사업계획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공격적 52.5%", "보수적 47.5%"라는 응답률을 보였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해외 신시장 개척(19.2%)', '인력 증원(18.1%)', '사업 확장(16.9%)', '노후기계 교체(14.7%)', '현상 유지(13.6%)', '사업 구조조정(9.0%)', '대내외 리스크 관리(6.8%)'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2017년보다 투자를 늘릴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52.9%,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7.1%를 보였고, '늘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중 투자계획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1~30%구간'이 다수(68.0%)를 이뤘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85.4%이상) 채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기업 당 평균 채용계획 인원은 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한국경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15.9%)', '불확실성에 가려진 경영시계(15.1%)', '최고의 복지 일자리창출(15.1%)', '함께 더 멀리 동반성장(13.8%)', '성장의 열쇠 규제개혁(13.4%)', '경기회복의 완전한 봄(7.9%)', '고르디우스매듭 노동시장 이중구조(7.1%)',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6.7%)', '보호주의 장벽 뛰어넘기(5.0%)'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채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BSI전망치는 조사시점의 다음분기를 전망하는 것이며 조사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실적을 추정한 것이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2년 만에 재현된 폭설에 곳곳이 ‘마비’



▲지난 1월 11일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국제공항은 세 차례나 활주로 폐쇄를 반복 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 체류객 7000명 중 2500여 명이 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폭설로 발이 묶인 건 지난 2016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1월 12일 새벽 4시 기준 적설량을 보면 한라산 어리목은 42.8cm의 눈이 내렸으며, 아라 16.0cm, 유수암 13.7cm, 서귀포 4.6cm의 눈이 쌓였다.



▲제주지역에 다시 2년 만에 '1월 폭설'이 재현됐다. 지난 2016년의 경우 2009년 이후 7년 만에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 강풍이 제주를 강타한 바 있다.



▲새하얗게 뒤덮인 제주 일주도로. 쌓인 눈을 녹이기 위해 염화칼슘이 섞인 모래를 뿌렸지만 차량들이 거북이 운전을 해야 했다.

고경실 시장 "폭설 대응능력 매우 부족했다"

16일 오전 간부회의.. 폭설·쓰레기·업무계획·재정 사항 등 당부

고경실 제주시장은 16일 오전 8시 30분경 본청 실국장 및 현안부서 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고 시장은 이번 간부회의에서 폭설 대응 시스템에 대해 "지난 이틀에 걸친 폭설로 교통과 쓰레기처리,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노출된 시민들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어 고 시장은 "2년전 이미 경험했

던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전대비와 시스템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완벽한 대응준비 및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다가오는 신구간과 설 연휴 동안의 쓰레기 처리대책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가 당부됐다.

고 시장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인 신구간과 2월 15일부터 18일까지의 설 연휴에 대비해 쓰레기, 교통 등 종합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 대책이 시민안전과 시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 시장은 2018 업무계획은 국장들이 직접 챙길 것을 부탁하며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제주시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시장은 "지난 3년간 제주시 재정집행이 꼴찌를 면치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올해는 그러한 난제들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소통을 확대해 신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제주시 2018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432억원 투자

변영로-삼화지구, 오동-애조로 구간 등 교통량 분산 목표

제주시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 46개 노선 38.71km에 사업비 432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제주시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중점으로 도로 사

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부지역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2도시위원회 도로 '변영로~삼화지구 구간' 개설사업을 올 3월에 착공하고, 도남동과 애조로를 연결하는 '오동~애조로 구간'

남·북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중앙로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산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오일장~평화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월광로~평화로 구간'을 개설해 서부지역 도심지내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올해부

터 토지보상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계획된 공사노선에 대하여는 1/4분기 내 공사를 발주해 사업비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고길림 부시장, 시정업무파악 이어 현안 현장 점검

재해위험지구 이도2동, 신설동, 공영버스 차고지 등 방문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이 18일 이도2동 신설동에 한 현장 점검차 방문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이 취임 후 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실국단위 전 부서에 대한 시정 업무파악에 이어 현안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 부시장은 18, 19일에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요구' 등 민원관련 현장인 이도2동, 신설동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읍면지선 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영버스 차고지를 방문한다.

이어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현장, 주차차 지도 상황실, 봉개 환경시설관리소 및 동북리 신규환경기초시설 건설 현장과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19일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장과 가축분뇨 유출 및 동굴훼손 현장, 한림항, 동서부 AT방역초소 현장을 찾는 등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길림 부시장은 실국단위 과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정 신속집행 및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본업무 외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사항에 대한 인계인수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실과장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18년 전 제주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그 사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 영역이 북제주군과 통합되어 그 영역이 확대된 만큼 읍면지역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소홀하지 않을뿐더러 직원 개개인의 고충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시장 역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수현 기자]

버려진 제주 양심, 가연성 쓰레기 배출 실태 '엉망'



▲제주시가 적발한 부적절한 분리 배출 쓰레기들.

제주시에서는 2017년 12월 6일부터 청소차량 점검을 시작으로 한 달 간 북부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분리 배출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고 15건, 회차 2건, 반입 금지 4건이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품 또는 불연성쓰레기들이 가연성쓰레기와 일부 혼합 배출된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당초 이번 점검은 종량제 봉투 내 비닐류의 혼합배출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비닐류의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해 가연성 쓰레기의 반입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릴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일부 종량제봉투 내에는 비닐류를 포함한 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불연성쓰레기까지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분리배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품 혼합 비율이 높은 사업체나 공공시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감시 수준도 더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이상순 서귀포시장, “서랍속 민원 공식화해 처리해야”

‘느린 민원’ 신속화, ‘숨어있는 민원’ 공식화 등 민원 처리 개선에 당부



▲이상순 서귀포시장.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1월 16일 별관 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정책회의를 개
셋마당에서 국장, 실과장 및 읍면동장 최했다.

이번 시정정책회의에서 이 시장은 민
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3보시스
템(접수-중간보고-결과)구축으로 친절
행정구현을 주문했다.

특히 “민원인이 사무실 방문, 전화, 현
장 등 대화중에 제기한 민원을 수첩에
만 적어두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민원을 제기한 시민 입장에서
는 행정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책상 서랍속에 숨어있는 민원을 공식
화해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느다’는게 일부
시민들의 평가”라며, “민원 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늦춰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민원으로 인한 행정불만 요인을 줄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극조생 감귤이 빨
리 부패하고 맛이 없어 향후 출하되는
감귤 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극
조생 감귤에 대한 대책마련을 도와 협
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정정책회의에서 ‘재
정 신속 집행 및 인계인수 철저’, ‘대
화·소통행정 철저’ 및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 개최’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서귀포관광지, 안전-친절-청결 3가지에 역점



▲대륜동주민센터는 구청사 건물의 건물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계기로 신속에 돌입했다.

서귀포시가 올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지 조성’을 목표로 안전, 친절, 청결 3
가지에 역점을 두고 관광지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낙석 방지망 설
치공사, 관람로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등 시설물 보수사업 7건에 17억1500
만원을 투입하고, 여성 대상 범죄 예
방 및 이용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100만원을 들여 야외 화장실 13개소
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CS
리더 주관 직원 교육을 주 1회 실시하
고 전문강사를 초청해 상·하반기 친절
교육을 추진하며, 관람 만족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
다.

아울러 천지연폭포와 주상절리대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유모차 대여서비스

를 지속 운영하고, 모유수유실 내 물품
을 보강해 유아, 노약자 등 관람약자
동승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
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계
절화 식재, 노후 시설물 보수를 통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지
홍보를 위해 1300만원을 투입, 직영관
광지별 홍보 리플릿 10만부를 제작·배
부한다.

특히 올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
로운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해 관광객

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
요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 등 홍보 강
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객에게는 관
광지의 이미지가 서귀포시 전체의 이
미지를 결정한다”며 “2018년에도 최
신 관광에 맞는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불편 없이 즐길 수 있
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김수현 기자]

동광 양챙이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동광 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후 현장.

서귀포시가 2015년부터 실시한 동광(소하
천 양챙이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
업을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해 동광리 주
민들이 반기고 있다.

동광(양챙이밭)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안덕
면 지역으로 해안까지 연결하는 배수로
가 없어 오래전부터 호우에 잦은 침수피
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 주택 26
동, 농경지 260ha 유실 등 침수피해가 발
생했으며, 2015년 5월에 내린 221mm의
폭우로 인해 상류에서 내려온 빗물과 토
사가 하류의 인근주유소를 덮치는 피해
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동광리 일원을 20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전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저류지 및 배수로
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에 2015년 상반기부터 국
비 22억 5천만 원, 지방비 22억 5천만 원
으로 총 45억 원을 투자해 착공했으며,
저류지 2개소, 전석배수로 782m, PC수로
220m 등을 시설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히 동광리 마을주
민들의 토지 보상협의, 문제점 등 도출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와 적극적인 협조
가 있어서 3년이란 단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Jeju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제주항 "방 빼", 떠돌이 신세 된 해수부 지도선



▲제주항 제11부두에 접안 중인 남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무궁화 1호.

해양수산부 소속의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어업지도선(불법조업 단속 선박)들이 조만간 정박할 항구가 더 줄어들어 떠돌이 신세에 놓이게 됐다.

올해 1월 3일에 제주항만청(제주항 관리)은 현재 제주항 제11부두를 선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수부의 지도선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빼고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각종 물류선박들이 접안할 선석이 부족해 제주항의 제일 끝자락 부두인 11부두까지 물류항으로 써야겠다는 것이 제주항의 요구다.

제주항이 제주도청 것이어서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어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사실 남해어업관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11부두는 임시 사용부두인데다가 제주항이 무역항이어서 제주항만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해되지만 불만이 없을 수 없는 해수부 관계자는 "(국비를 동원해)부두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운용 중인 지도선은 모두 10척으로, 500톤급의 6척은 2부두에 접안하고 있으며, 나머지 1000톤급 4척은 11부두를 이용하고 있다.

2부두에 접안 중인 6척의 지도선은 3척씩 2교대로, 11부두를 사용 중인 4척의 지도선은 2척씩 2교대로 정박하고 있다. 이들 지도선들은 한 번 나가면 평균 8~10일 정도를 바다에서 24시간 지낸다. 남해 관할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타 국적(주로 중국)의 어선들을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조직이 개편되면서 활동영역이 12만 6000km²로 27%가량 넓혀졌다.

하지만 실상은 지도선 2척이 동시에 접안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18일 오전에도 임무를 마치고 11부두에 접안한 지도선은 1척 뿐이었다. 나머지 1척이 접안해야 할 공간엔 다른 민간선박이 들어서 화물을 한창 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무를 마치고 접안하려는 다른 지도선은 앵커리지(닻을 내려 바다 한 가운데 정박시키는 곳 따위를 말함)에 대기하고 있거나 여수항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나 여수항도 상황은 제주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여수엑스포항 2부두에 접안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마리나항 사업을 이유로 나가리는 상황이다. 여수항 측에선 선박이 오는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이니 그 때까지 참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해나 서해는 어업 지도선을 위한 전용 선석이 마련돼 있다. 유독 남해만 상황이 어렵다.

제주자치도는 신항을 계획 중에 있지만 워낙 큰 공사라 더 먼 미래 얘기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0년까지 화순항을 준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에 화순항 실사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배가 있어도 접안할 곳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해수부 노조 측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껍데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당초 제주항만청은 오는 23일까지 11부두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일 접안하기로 했던 화물선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25일로 '데드라인'이 늦춰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25일까지 비워달라는 것도 늦춰질 수 있다"며 "화순항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수도 없어 8부두를 임시로 쓰라고는 하는데 크루즈가 들어서면 다시 또 빼줘야 해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만청은 당장 갈 곳 없는 남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을 위해 임시로 제주항 8부두(크루즈 전용부두)로 접안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 한·중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정된 700여 항차에 달하는 크루즈 선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도 4~5척 정도가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나가면 한 달에 2번 정도만 집에 들어가는 꼴"이라며 "8부두에서도 나가고, 내년 2월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문제 때문에 매달 관계 부서와 협의는 벌이지만 뾰족한 답이 없어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화순항이 개방된다 해도 (제주시에 집이 있는)직원들은 불편하겠지만 먼 길을 돌아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명현 기자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진상조사도 이뤄질까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건 등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 탄력으로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의 진상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포함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밀양송전탑,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공권력이 개입한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강정마을회는 그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이후에도 해군이 조직적으로 인권탄압은 물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군은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저지하기 위해 수시로 공권력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이들만 무려 696명에 이른다.

연행된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만 111명에 달할 정도

다.

정부 발표에 대해 강정마을회 고권일 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이어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의 진상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권일 회장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중반부터 저희를 포함해 백남기 어르신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 참사 등 다섯 단위의 주체들이 모여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와대에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고권일 회장은 "이번을 기회로 정의구현이라든가 인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두

시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특히 고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가 잘 이뤄져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진상조사도 강력하게 청와대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회장은 "그렇게 되어야지만 진정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백길홍 기자

2년만에 또... 제주공항 '폭설 악몽'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월 11일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제설작업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다시 2년 만에 '1월 폭설'이 재현됐다.

지난 2016년엔 2009년 이후 7년 만에 기습적인 엄청난 폭설과 한파, 강풍이 제주를 강타해 제주국제공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당시 1월 23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25일 오전까지 제주 전역을 하얗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은 유례없는 난리를 겪어야 했다. 23일부터 25일 오전까지 무려 3일 동안 활주로 운영이 중단돼 수 천 명의 체류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위나 기습적인 상황에 제대로 된 대비책이 없던 터라 제주특별자치도나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큰 시련을 겪어야 했

다. 이 당시 겪었던 일을 계기로 제주자치도는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게 됐다. 우선 재난상황 시 도민들에게 문자를 빠르게 전송하고, 공항 내에 많은 체류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갖가지 분산정책을 고안했다.

덕분에 예전처럼 지연된 항공기에 먼저 탑승하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공항 카운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크게 줄었다.

하나 아무리 대비책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기습적인 폭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발을 묶어 버리고 만다.

1월 9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은 11일 오전 8시 33분부터 11시 25분까지 잠시 모든 운항이 중단됐

다. 오후 5시 이 시각 현재까지도 많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터라 제설작업이 간간히 진행되는 동안엔 잠깐씩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비행기 연착률은 비일비재하며, 결항된 항공편이 130여 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출발 64편, 도착 67편 등 총 131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13편은 회항, 33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엔 5000명이 넘는 체류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폭설로 인한 현장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자 오후 2시에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종합상황실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결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제주지방항공청, 각 항공사 지점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등 항공기 결항 및 지연상황을 안내하고 여객질서 유지 및 식당·현의점·의무실·약국 등 업체의 연장 영업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자치도와 함께 공항 체류객 발생 시 대비를 위해 모포 및 매트리스 1500개와 생수 7000병을 보유하고 심야 대중교통 연장 운영을 위한 공항유입 택

시 쿠폰을 지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로 결빙 등에 따른 공항 주변 교통관리와 함께 혼잡에 따른 경력을 추가로 배치하며 대합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약 7천여 명 결항 승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 체류객 발생 대처 매뉴얼을 점검하고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때보다 '1월 폭설'이 20여일 앞당겨졌다. 폭설주기도 보통 4~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이상기후가 더 자주 출몰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다. 미국도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닥쳐 동부 연안 마을이 겨울철에 때 아닌 '빙하홍수'를 겪는가 하면, 같은 기간 호주에선 낮 기온 온도가 47℃를 육박하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겨울철 극지방의 찬 기운을 가두는 기능을 했던 제트기류의 세력이 약해져 극저온이 밀로 내려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극지방의 온도와 제트기류를 형성하는 남반구의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현 기자

의료연대 "원 지사 영리병원 허가 불허하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에 관한 질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내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외국인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6일에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의료연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제주특별법 제 309조(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로, 이 법 준용 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

한 논란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연대는 원희룡 도지사가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되어 이제 자신들의 주장도 번복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작하여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며 내국인 영리병원 허가도 같은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우리 운동본부가 제기한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문제, 사업계획서 미비문제 등 법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일

연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 본질호도를 중단하고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미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헬스케어단지 내 사업비 778억 원(토지 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을 투입, 연면적 1만 7678.83㎡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될 계획이었다.

이 영리병원에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개원하고 9명의 의사와 28명의 간호사, 1명의 약사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유독한 '미세 플라스틱', 제주도 밥상 오를까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물고기들이 섭취하면서 밥상까지 오르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 연대가 진행한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주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플라스틱이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이 전체의 47.2%에 달하는 116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16.9%인 419개로 2위를, 스티로폼

이 14.3%인 355개로 3위를 차지했다.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대부분이 폐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이로써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폐 플라스틱은 마모·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질 돼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해양생물들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

취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의 밥상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계 플라스틱쓰레기는 대부분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된다"며 "연안활동 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계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외국에서 흘러들어 온 쓰레기는 대부분 중국 동부해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론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발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외국기인 쓰레기에 대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동부 해안지역에 공업지역이 크게 늘고 더불

어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의 불법어획행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외에 어업관련 쓰레기도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의 예산증액과 담당부서의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남해안지역과 중국에서 쓰레기가 기인된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예산으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운영해 우리나라 동, 서, 남해 연안 40곳을 선정,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예래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 "사필귀정"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토지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고수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

문제는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이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

제수용을 폐지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각종 절차들이 제주자치도와 JDC의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법원 판결이 나와서야 확정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준다는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

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원지특례조항은 잘못된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반 헌법적 조항"이라며 "따라서 해당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특별법 151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하고,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투기와 먹튀에도 이용되면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가능성이 없는 사업재추진에 기대며 사태를 장기화 할 것이 아닌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길홍 기자]

해경 올해 총 975명 채용

해양경찰청이 올해 총 975명(전국)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신설되는 과목과 바뀌는 체력평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채용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도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을 전년 대비 25.3% 증가한 975명을 선발해 해양사고를 대비한 구조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 모집분야를 보면 경찰관은 915명으

로 경감 4명(변호사), 경위 22명(간부후보생 10, 항공조종12), 순경 889명(특임 구조 166, 구급 17, 공채 279, 합정요원 350, 해경학과 10, 외국어 2, 과학수사 13, 항공 27, 정보통신 20, 홍보6)이다.

일반직은 60명으로 7급 1명(전산), 9급 59명(해양수산 54, 전산 3, 방송통신 1, 공업 1)이다. 경감의 경우 영장 오남용 방지 및 수사법률 지원 등 인권보호 수사를 위해 변호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를 채용한다.

특히, 특임(구조) 분야는 충분한 구조 직별 인력을 확보하고자 전년 대비 27.5%가 증가한 166명을 선발한다고 해경은 전했다.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구조거점파출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구조역량과 긴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이후 공고되는 3차 시험부터는 해양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성과 기본적인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이 신설되며 '수영종목'이 체력평가에 포함된다.

제주해경은 "신설되는 과목과 바뀌는 체력평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월 중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채용 홈페이지(gosi.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길홍 기자]

낙원산업 토석채취반대위, "공무원, 공정하게 일해야"



▲세화리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위원회가 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월 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2차까지 진행돼 온 환경영향평가 상황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반대위는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53가구가 살고 있으며, 16가구는 신축허가 및 공사 진행 중"이라며 "주택가 한복판에서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위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을 안건으로 진행된 1차, 2차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바뀐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

다. 황정연 반대위원장은 "1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녹취록은 그냥 보내줬고, 2차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구두로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보공개요청을 하라고 요구하더니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반대위원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으며, 한 주민은 "대통령 밥값도 공개하는 판에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한 녹취 파일을 공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육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라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식"이라는 의견을 낸 주민도 있었다.

피해의 실질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소리를 모았다. 황 반대위원장은 "시설 때문에 모래 바람이 본인 집으로 날아오고, 트럭 먼지도 상당하다. 공사 잔존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가에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또, "불과 300m 전방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 깨는 소리가 들린다. 차 3~4대가 왔다 갔다 하며 나는 소음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주민은 "낙원 산업 직원이 마이 크에 대고 '차 집어넣어, 차 빼'라며 큰 소리를 내 세살 먹은 손자가 놀라 울었다"며 "소리를 낮춰 달라 전화했지만 대 표는 '불법 아니다, 문제 없다'라고 했다"면서 "애가 쓰러져 죽어야 불법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낙원산업측과 따로 접촉은 없었느냐는 질 문에는 "2차 심의 당시 심의위원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주와 대면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며 "추석 지나고 인근주민과 사업주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반대위는 "1차 접촉 시 낙원산업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듯 보였으나, 그 이후

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자주 접촉하고 그쪽에서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무시로 일관했다"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공무원의 '공정성'을 두고도 할 말이 많았다. 황 반대위원장은 "공정하게 공무를 봐야할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서를 어제야 우리에게 통보했다"며 "사업지는 지난 주 수요일부터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위는 "낙원산업이 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30명의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결과지를 써낼 때도 심의위원이 낙원산업에 인근산업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동의'라고만 표현해버렸다"며 "모든 부분이 유야무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반대위 소속 주민들은 "모르니까 살려들어왔지 알고는 누가 들어오나"라며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설마 맨 땅을 파서 토석 채취를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공익'을 따지기 전에 피해 상황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반대위는 1월 19일에 열리는 3차 재심의에서도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고권일 강정마을회장, 제주도지사에 도전장



▲제주녹색당 소속으로 고권일, 고은영, 김기홍, 오수경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1월 18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지사 후보에 나설 인물들을 발표했다.

제주도지사에 도전장을 던진 인물은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강정마을 회장)을 포함해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기홍 제주 쿼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오수경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 4명이다.

제주녹색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안녕하지 못하다. 정말로 심각한 부분은 인구유입과 관광정책에 제주도 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2030년도까지 쓸 예정이었던 제주도내 4개 매립장과 7개 하수종말처리장들은 모두 포화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토지가격 상승 붐이 제주지역 공동체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는 교통지옥이 되고 있다. 제주시권역은 교통마비 수준을 넘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 도로가 주차장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적성장을 가속화시킨 지난 11년 동안 임금수준도 전국 최하위고 도

민 행복지수도 꼴찌다. 일자리 창출 역시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농촌사회나 일반 사무직 경우 남녀임금격차 역시 최하위로 제주도에서는 공무원 말고는 할 직업이 없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에는 허울뿐인 평화의 섬이 되고 있다. 핵잠수함이 공공연하게 기항할 정도로 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데도, 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 공군기지까지 추진 중이다. 일상을 위협하는 군사기지화 논의에도 도민은 단 한 번도 주체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도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 100개 과제와 44개 부서별 자체과제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거대 난개발도 동

시에 추진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제주도정은 도민행복을 강조한다. 지키지 못할 미래 비전을 내놓고 자위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지속 가능한 녹색 제주, 행복한 도민의 삶을 추구한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정치의 토양 속에서 양적 관광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2018년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길홍 기자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이 교육감, 연일 계속되는 의혹에 골머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정보화 기기 보급 입찰 의혹까지 더해지며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업무 담당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월 18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감사 중인 정보화 기기 보급 입찰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은 크롬북 180대를 3개 학

교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당시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5개 업체 중 1순위 업체가 제주도교육청의 권유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면서 '부정당 업체'로 낙인 찍혔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2개월 동안 공공기관 공개입찰 참여는 고사하고 2년 간 공개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패널티가 부과됐다.

때문에 업무 담당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업무 담당자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정보화 기기 구매 설치 입찰건과 관련, 1순위 업체가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월 15일 주간기획조정회의를 통해 "청렴도에 매우 걱정스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오해와 의혹들이 쌓이면 제주교육 전체 정책, 행정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종필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들과 업체의 주장이 상반되고,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감사관은 "청렴도 회복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한

치 의혹이 없이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바라며 제주교육의 청렴도,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화 기기 보급 입찰 의혹과 더불어 해소되어야 할 의혹이 또 있다. 바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 처형이 대표로 있는 특정 호텔에서 유독 외부행사를 많이 진행했다.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교육감은 압박 끝에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연일 계속되는 잡음에 공무원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청산대상인 '적폐'에 해당한다"며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교육의 심각한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길홍 기자

감사위, '삼성초 수업 중 석면 공사' 주의 처분

지난해 여름 제주 삼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수업 중 석면 철거 공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감시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학교 측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삼성초등학교 화장실 수리공사(석면철거 등)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에서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해당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은 공사현장의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사현장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착송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삼성초는 학부모는 물론 학교를 출입하는 학생들에게도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사현장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했다. 삼성초는 지난해 7월~8월 여름방학 방

과후 교실과 돌봄교실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학교 측의 불찰로 당시 학생들은 분진 및 파편, 건축자재, 폐기물들이 널려 있는 공사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제정될 정도로 1급 발암물질이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철거근로자 및 주변인 모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정확한 공지와 엄격한 규정 준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삼성초 학부모들은 "행정문서들에 대한 공개요청 후 검토를 해보니 보면 불수록 학교 및 교육당국의 무책임에 화가 난다. 이번 석면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해 달라"며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다.

박길홍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주교육의 방향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기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월 18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다섯 번째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올해 독서·체험 기반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학생 동아리 지원 확대, 글로벌 화상교육 지원, SW교육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방향성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등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 교육감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한 예술적 감수성 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찌감치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라고 잡고,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예술적 감수성 등을 키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역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더 많이 토론·소통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며 개개인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의·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소통이 활발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읽어내는 문해력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독서기반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통합 활동을 지원하는 온책 읽기 지원 △현대적인 독서환경 조성 지원 등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심축을 '학생 동아리'로 설정,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석문 교육감은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학생 동아리"라며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 자질 등이 자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큰 지원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다"며 "학생 동아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부공남 의원, 교육감 불출마... 교육의원 재도전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감 후보로 거론됐던 부공남 교육의원(제1선거구)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공남 의원은 다만 교육의원 재도전을 통해 제주교육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부공남 의원은 1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지난 2014년 6월 교육의원원으로 출마하며 봉사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도자상(像)을 구현해 제주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의식과 가치가 자리 잡고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운을 뗐다.

부 의원은 "당선된 순간부터 오늘까지 이 슬로건을 의정활동의 지표이자 실천철학으로 삼아 한 시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늘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 이어 "그러나 저는 고심 끝에 선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도민들께는 물론 다른 후보들에게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불분명한 태도는 자칫 국민의 표심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초심으로 견지해 온 '새로운 지도자상 구현'을 통한 '정의

로운 의식과 가치 확산'이라는 의정활동 지표이자 실천철학을 제주교육과 제주사회에 확산시키는 일은 교육의원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는 올해 선거에서는 교육감으로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현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재도전을 통해 최선을 다해 제주교육과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올바른 정치인의 '본'을 계속 보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길홍 기자]

"공교육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올해 첫 총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

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및 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

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18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길홍 기자]

이 교육감 취임 후 보고 공문 절반 이상 줄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는 보고 공문이 50% 이상 줄어 들었다고 1월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6개 학교(초2, 중2, 고2)를 대상으로 발송문서 생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 취임 이후 보고 문서가 50.2% 감소(2014년 평균 996건 → 2017년 평균 496건)했다.

이는 매해 20% 내외로 꾸준히 감소(전년 대비 2015년은 25.9%, 2016년 16.9%, 2017

년 19.1%)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업무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업무 담당자별로 전년도 학교 발송 공문을 전부 분석해 불필요한 공문이 학교에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 홍보성 공문의 경우 공문 게시를 통해 공문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와 도의회의 요구자료인 경우도 학교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교육청

보통계시스템 자료를 직접 추출해 활용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활용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4년 대비 2017년은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학교 차원에서도 충실한 교육계획서 수립을 통한 내부결재 및 사업 감축, 교육과정지원팀 구성·운영 등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학교로 쏟아지는 외부 공문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학교 부담을 덜어내고, 교육과정지원팀의 확대 운영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제주 학생들의 마음 건강 '파란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Wee센터와 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마음건강 예방 활동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2명)가 마음건강 상담 998명, 2,124회, 교육 44회, 자문 19회를 제

공했으며, 또 임상심리전문가(1명)는 종합심리검사 103명, 교육 81회, 자문 72회를 운영했다.

학생상담사(6명)는 전문의 상담 후 추수 지도, 학습부진학생 프로그램 지원, 방송고 학생 지원 등 873명, 2,809회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를 666명, 가정 회복을 위한 동지킴이 멘토링 운영 58명, 관심군 학생 213명에게 병

의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544명 중 85%(464명)가 학생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 지원이 실제 학생지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학생의 문제행동 이해 44%(266명), 병원연계 24%(112명), 교사의 부담 경감 22%(101명), 학생 지도 방법 등

10%(4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수행한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제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 33.9%(전국 37.2), 우울감 경험률 22.9%(전국 25.1), 자살생각률 11.3%(전국 12.1), 주중 평균수면시간 6.4시간(전국 6.3), 주관적 수면 충족률 28.0%(전국 25.1)로 나타났다. [백길홍 기자]

바둑기사 이세돌, 제주서 커제 상대로 승리



▲이세돌 9단은 1월 13일 오후 2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제주에서 열린 '2018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에서 커제 9단을 상대로 승리했다.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중국 바둑기사 커제 9단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이세돌 9단은 1월 13일 오후 2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제주에서 열린 '2018 해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

국'에서 커제 9단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날 열린 세기의 대국은 해비치와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현대자동차와 북경현대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JTBC와 JTBC3,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접전 끝에 이세돌 9단이 승리함에 따라 그는 우승 상금 3천 만원과 현대차의 소형 SUV 코나를 부상으로 제공받았다. 패자이긴 하지만 커제 9단 역시 1천 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박길홍 기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초대 원장 및 이사 공모

24일까지 총 12명 전국 공개모집, 2월 중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칭

제주영상위원회 해산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오는 2월 중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에 제주영상위원회의 해산을 의결하고, 기존의 영상위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그대로 흡수기로 결정했다.

해산 자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잡음이 일었다. 김홍두 국장은 9일 오전 도 본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상위 해산 과정에서 콘텐츠진흥원의 조직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조직명칭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2월 중에 정관을 고쳐 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제주영상위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며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진흥원 안에 두면서 영상 관련 인력을 5~6명 충원해 22명의 조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결정되면서 제주자치도는 우선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초대 원장과 이사, 감사 등 총 12명의 인원을 전국에 걸쳐 공개 모집한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6일까지 공고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 공모에 따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용예정 직위는 원장 1명, 선임직 이사 10명, 선임직 감사 1명이며, 원장은 진흥

원의 대표로서 경영책임과 재정 및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사는 진흥원 재단 업무에 관해 이사회 참석 및 심의·의결을, 감사는 진흥원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된다.

원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원장 응모자격은 영상·문화산업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의 원장 자격이 있거나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할 자격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비상근 이사의 자격은 영상·문화산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비상근 감사에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이사와 감사는 1차 서류심사만 보고 채용되며, 보수는 없다. 다만, 내부 규정에 의거 수당 등은 지급 가능하다. 원장은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 대상자로 5명(5배수) 이내로 2차 면접심사 대상자를 가린다. 2차 심사에서 경영능력이거나 전문성, 리더십, 조직진화력, 윤리관 등을 보게 된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원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게 된다.

[김명현 기자]

'고향 제주에서 해발 8750미터 히말라야까지'

상명대 양종훈 교수, 1월 12일부터 김만덕 기념관서 포토옴니버스전



▲양종훈 교수의 '제주 해녀'.

양종훈 상명대학교 교수(현 한국사진학회 회장)가 다음 달 2월 25일까지 제주 김만덕 기념관(관장 김상훈)에서 포토 옴니버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양종훈 교수가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30여 년 간

기록한 사진들로 준비됐다. 양 교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간벽지와 에이즈로 죽어가는 비극적인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의 폭압 정치로 빛어진 동티모르의 아픔을 담아낸 사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종훈 교수는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며 "이 세상에서 병들어 악한 자, 소외 받은 이들이 자신에게 손짓하는 믿음에서 시작한 지금까지의 일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수현 기자]

제주아트센터 개관 8주년 2018 주요 공연 공개

연극 '장수상회', 조수미와 러시아 발레단 등 특별 공연 줄지어

제주아트센터(소장 좌무경)가 개관 8주년을 맞는 2018년 주요기획공연 계획을 공개했다.

2월에는 연극 '장수상회'가 개최된다. 장수상회는 명배우 신구, 손숙 주연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로 지난

해 국립극장 특별공연 당시 10회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3월에는 오페라 '다트라비아타(춘희)'가 공연되며 5월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제주를 찾는다. 7월엔 KBS 교향악단의 연주가, 10월에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뉴욕 필하모닉 악장과 수석 3인의 현

악 4중주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11월에는 제주 해녀 관련 공연 프로그램이 기획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발레단이 내한해 제주에서 특별공연으로 호두까기인형을 준비 하고 있다.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은 다양한 입장으로

할인으로 노인 및 다자녀가정 등은 50%, 20명 이상 단체 및 문화사랑회원 등은 30% 할인된다. 예매는 공연 약 1개월 전부터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아트센터(728-1503, 8953)로 가능하다.

[김수현 기자]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 지역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

제주영상위원회 영상산업팀 이수경씨 연구 논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관광 콘텐츠가 연구 결과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영상산업팀 이수경씨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문화 콘텐츠전공 졸업논문인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가 관광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현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일반 영상 관광 콘텐츠와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 이용자 집단을 나눠 실험을 한 결과 가상

현실 관광 콘텐츠 이용자 집단에게서 관광 기대효과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실증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 비교실험을 진행했다. 실험물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VR융합형 관광체험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플레이 제주(Play Jeju)' 영상을 활용했다. 이 씨는 "연구 결과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

이용자 집단이 일반영상 관광 콘텐츠 이용자 집단보다 경험가치와 현존감을 보다 높게 지각했으며, 관광목적지에 대한 방문의도의 변화 역시 더욱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자체나 관련 전문기관은 다양한 경험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가 관광기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구현을 제시하였음에 의의를 갖는다"며, "이러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제주도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돌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제주 신화테마파크, 3월까지 입장료 할인

제주신화테마파크가 2018년 새해를 맞아 할인 혜택을 더한 '신화 윈터 스페셜' 요금을 한정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1월 5일 밝혔다.

신화 윈터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신화테마파크 입장료가 대인 기준 2만 4000원, 소인 기준 1만 8000원으로 조정되며 이용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신화테마파크 내 오픈 운영 중인 아이스링크는 3월 2일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화테마파크는 제주신화월드가 국내 토종 애니메이션 기업 투바엔과 제휴해 만든 야외 테마파크다.

제주 최대 규모인 신화테마파크는 겨울을

맞아 시설 전체가 루미나리로 꾸며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야외 아이스링크는 올 겨울 제주에 개장한 유일한 아이스링크로 제공되는 아이스링크 입장권에는 스케이트, 헬멧 및 장갑 대여가 모두 포함되며 45분간 이용이 가능하다.

오스카 브이월드는 신화테마파크 내 위치

한 가상현실(VR)체험 시설로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시뮬레이터를 타며 생생한 가상현실 세계를 즐길 수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야외 아이스 스케이팅은 3월 2일까지 운영하며 신화테마파크 입장권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박길홍 기자

2018년도 '삼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제주관광공사, 읍면단위 신규권역 지역관광 추진 주민사업체 모집

'삼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삼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관광두레 사업을 제주형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제주도 내 읍면 권역 단위의 광역화된 지역관광 추진을 위해 기존 인프라 위주의 지원방식이 아닌,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가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삼춘마을 만들기 2차년도 사업에 참여할 신규 읍면 권역 사업 추진

체를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마을 고유의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을 지역특색에 맞게 활용한 관광상품화 및 사업화를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사업체 최소 3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구좌읍이 첫 번째 삼춘마을로 선정돼 사업지원과 더불어 마을여행 활동 기인 '삼춘PD'를 채용, 지원하는 한편 주민

사업체 기초역량을 배양하는 등 삼춘마을 만들기 1차년도 사업을 추진했다.

삼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총 3개년에 걸쳐 사업화 단계, 안정화 단계, 자립화 단계의 모델로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되며, 올해는 2차년도로 신규 선정된 읍면 권역에 마을여행 활동가 '삼춘PD'를 지원하여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기존 권역(구좌읍)에 대해서는 마을간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사업 발굴 및 실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삼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연차별로 추진하면서 도내 읍면 단위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반의 특색있는 관광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는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행되며,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j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064-740-6086)로 문의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제주 렛츠런파크서 새터민 어묵 · 핫바 푸드트럭 개업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소자본 창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도모



▲새터민 차유미씨가 통일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의 도움을 받아 제주 렛츠런파크에 푸드트럭을 개업했다.

새터민이 직접 운영하는 푸드트럭 '메니피'가 1월 19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공원)에서 개업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업식에는 고영빈 렛츠런파크 제주경마사업처장, 김학신 렛츠런재단 사무총장, 김희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푸드트럭의 개업을 축하했다.

통일부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은 푸드트럭을 통한 탈북민 맞춤형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

원재단은 대상자 선정 및 창업교육, 컨설팅 비용 등을 담당하고, 한국마사회와 렛츠런재단은 차량구매 및 푸드트럭 개조, 영업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메니피' 푸드트럭 운영자인 새터민 차유미씨는 "그동안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과 인자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이번에 푸드트럭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도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공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학신 렛츠런재단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 사업은 한국마사회와 렛츠런재단이 차량과 입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협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꿈과 열정이 푸드트럭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마사회와 렛츠런재단이 지원해 운영하는 탈북민 푸드트럭은 총 7대 운영 중이다.

김수현 기자

빗물+페인트 섞인 폐수, 서귀포항에 버려져



▲빗물과 섞인 페인트가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돼 반경 30m 일대가 심하게 오염됐다.

지난 1월 16일 서귀포항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M페인트 업체 대표 C모(47) 씨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해당 업체는 자사의 물류 창고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약 72l의 폐수를 서귀포항 4부두에 버렸다.

C씨는 물류창고를 도색하고 남은 페인트

통을 욕상에 방치해뒀다가 빗물에 양겨가 득차게 되자 그대로 바다로 배출시켜 반경 30m에 이르는 해안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서귀포항 내에서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인근 선박과 주변시설 등을 탐문해가며 조사한 끝에 C씨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선 특정 수질의 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우천 시 페인트 등 빈 캔이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해양에 배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현 가제]

어린이집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68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월 17일 오후 2시께 A어린이집에서 6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구토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자 곧바로 도내 2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시켰다.

이날 A어린이집은 오전에 우유를, 점심으로는 미역국과 두부, 봄나물 등의 식단을 아이들에게 먹였다.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이 구토를 하기 시작하자, 어린이집 측은 2시 30분에 제주시 보건 위생부서로 신고

했다.

현재 증세가 심한 4명은 입원했으며, 나머지 어린이들은 귀가 조치한 상태다.

제주시 위생부서와 보건소는 현장으로 직원들을 급파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건당국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취식한 음식물 등을 수거해 검사할 의뢰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아직 식중독인지 여타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2일간 휴원키로 했다. [김명현 가제]

음주 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구속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40)를 구속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8시 43분경 음주 상태로 제주시내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의 정차명령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급가속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어깨가 탈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즉시 주변 CCTV 등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튿날 출석을 요구해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단속 당시 경찰관을 차로 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가제]

숨골 등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축산업자 실형

숨골 등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축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양돈장에서 약 70~80m 가량 떨어진 농지에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고 씨는 또 2톤짜리 탱크가 설치된 포터트럭을 이용해 인근 과수원에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3,697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 씨는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인 숨골에도 가축분뇨

를 배출했으며, 이 때문에 가축분뇨가 지하수로 스며들어 공공수역을 오염시켰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다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길홍 가제]

성산항 입구서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충돌



▲1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입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어선과 출항하던 수상레저기구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입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어선과 출항하던 수상레저기구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6분경 성산항 입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어선 C호(977톤, 성산선적, 승선원 4명)와 레저활동을 위

해 출항하던 I호(1.15톤, 동력수상레저기구, 승선원 1명)가 서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I호가 전복됐으나 승선하고 있던 B씨(62, 서귀포시)가 자력으로 탈출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선 C호의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40분경 B씨를 구조하고 연안구조정에 옮겨 태운 후 성산항으로 입항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B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 C호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길홍 가제]

라마다제주함덕호텔 운영사 파산 절차 개시

제주시 조천읍 소재 라마다제주함덕호텔의 운영사인 퍼스트민서 주식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라마다제주함덕호텔의 운영사인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에 대해 1월 18일 파산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는 라마다제주함덕호텔과 라마다제주서귀포호텔 등을 운영하는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3년 8월 설립됐다.

그러다 라마다제주함덕호텔에서 최근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객실을 분양받은 일부 투자자들까지 법정 분쟁을 벌이며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는 법원의 파산 개시 결정 이전에 회생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회생신청을 받아들여지면 파산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 [박길홍 가제]

현광식 전 비서실장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건

현광식(56)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고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와 고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

다. 압수된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PC, 입찰 관련 자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은 강제수사를 밟기 위한 절차인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조창윤 전 찰레꽃 대표가 언론보도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

가 후보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뒤 이튿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2000페이지 분량)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돈이 오고 간 것이 직무와 연

광성이 있는지, 본인의 이득과는 다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창윤 씨의 진술을 확보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언론사에 대한 불법 사찰 부분에 대해 경찰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길홍 기자]

20대 실종 여성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20대 여성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월 8일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 탐동 서부두 인근 해상에서 숨져 있는 박모(28, 여)씨를 관광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을 인양하고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실종자 박 씨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숨진 박 씨는 발견 당시 상

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상의는 탈의됐으나 하의는 입고 있었다"며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타살 흔적은 없지만 자세한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주해경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색을 확대했다.

[박길홍 기자]

오라동서 시내버스 교통사고 15명 부상

지난 1월 11일 많은 눈으로 도로 곳곳이 결빙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월 11일 오전 8시 35분쯤 제주시 오라이동 오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6명 중 15명이 다치면서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곳곳이 결빙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 57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5.16 도로에서는 눈길로 고립된 차량들이 잇따랐다.

또 빙판길로 인한 차량 멈춤 사고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제주지역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정체 현상을 빚었다.

[박길홍 기자]

일자리 알선 유혹한 중국인 사기범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했다며 중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수 백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경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했다"고 광고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중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총 4만5000위안(한화 약 76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앞서 A씨는 제주에 무시증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중

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해 10월 18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마트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

지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알선 행위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길홍 기자]

실종된 40대 선원 숨진 채 발견

1월 9일 제주시 화북 1동 해안가에서 실종된 화물선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경 제주항 신항 10부두에 계류 중인 화물선 K호(6749톤, 제주←목포) 선원 김모(49, 인천)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장이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김 씨가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조대를 투입하고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1월 9일 오전 11시 52분경 제주을레길 18코스를 걷던 관광객이 해안가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원확인 결과 실종된 김 씨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김 씨는 제주시내 모 병원에 안치시켰고,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로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테크노파크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 입건

제주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테크노파크직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감사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지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시체육회, 제주4.3평화재

단 등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포착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도감사위로부터 전달 받은 인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채용 비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개 기관은 제주경찰청에서, 나머지 2개 기관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홍 기자]

→ [기고]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카지노 감독 조례 개정안, 재의에 대한 유감



지난해 12월 제주 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사업허

가 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가 핵심이라 하겠다.

개정 조례를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해당 개정내용은 기본적인 사안의 보완이라 하겠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두 번째 사안인 면적 변경에 있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

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문제 삼고 있다. 이유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카지노 면적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도지사의 노력을 명시한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과연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며, 법리 논쟁이 필요한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카지노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카지노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부여 받고 있다.

즉, 기존 상위법에도 카지노업 허가를 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허가의 주요한 검

토요건 중 하나다. 그런데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변경허가에 동일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제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제주 카지노업은 현재 6개가 외국인, 2개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2개 업체는 대형카지노 사업계획을 획득하여 추진 중이고, 2개는 대형 카지노가 가능한 사업계획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대형카지노 추진을 천명한 사업지도 1개가 있으며, 중단된 예대단지 카지노구역까지 포함하면 무려 5개의 대형카지노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신규허가라면 공모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산화역사공원 같은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는 별 문제 없이 시도되어 제주를 카지노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글자 그대로 제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적합한 수준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는 조절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대형 카지노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아직은 미약한 상태다.

물론, 상위법 개정과 기타 관련 법규가 만들어진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제주도 상황은 무작정 정부의 제도개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대형 카지노 수요가 무조건 나오는 사안도 아니며,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내용도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재 카지노를 인수한 극소수의 사업자에 국한된 내용이며, 이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제도적 방법론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Jungs story



작가: 최정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최정화 작가는 Naver 일러스트팀에서 근무하다 귀촌을 결심. 가족과 함께 서귀포시 위미리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jungsline>

#24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 [펜안허우과] 차영민 역사장편소설 - 61화, 감자 한 입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더니 목덜미에 정확히 꽂히고 말았다. 피가 솟구치기도 전에, 대장군은 숨소리조차 내밀지 못 한 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디서 나온 화살인지는 당장 알 수가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소한 나와 함께 온 사람들 중 누군가가 쏜 건 아니었다. 그걸 감히 잠시라도 의심할 새도 없이 주변 나무들 사이에서 화살이 쏟아지듯 나왔고, 순식간에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김통정의 목에 닿았던 칼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오히려 나와 지슬의 주변으로 날을 바짝 세운 창칼이 에워싸는 형국이었다.

“아무래도 그 긴 목숨줄은 여기서 안녕을 고해야겠소이다.”

김통정은 목에 별절게 살짝 긁힌 칼자국을 손으로 슬쩍 털어내며 미소를 드러냈다. 우리는 분명 손에 칼을 쥐고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휘두를 엄두조차 내지 못 했다. 그저 조금씩 멀어져가는 김통정의 뒷모습만 닭 쫓던 개가 된 듯 바라만 볼 뿐이었다.

“이젠 좀 가거라, 우리 주군께선 네놈들 아니더라도 바쁜 몸이나라!”

창끝이 사방에서 밀려들어오려고 할 때, 지슬은 갑자기 몸을 비틀었다. 그가 짝 쥐고 있던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왔다. 바람을 가르며 군사들 사이를 비껴나가며 달은 곳은 다름 아닌, 김통정의 어깨였다. 완전히 꽂힌 건 아니었지만 스친 건 확실했다. 우리를 둘러싼 군사들은 갑자기 돌이 된 듯 멈추었고, 김통정도 마찬가지로. 칼은 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졌지만,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했다.

저 너머에서 김통정을 맞이할 군사들의 눈빛도 우리 쪽으로 향하였다. 아니, 주변의 모든 시선을 우리가 하나로 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움직임을 보인 건, 사방에 숨어서 화살을 쏘아대던 궁수들이었다. 그들은 활시위를 바짝 당긴 채, 조금씩 숲속에서 한 발자국씩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해봐 열 명 남짓이었지만, 그들이 쓰러

뜨린 자들만 해도 수십 명은 훌쩍 넘었다. 그중 한 명이 정확히 내 머리로 화살촉을 겨누었다.

“감히 이놈들이!”

화살이 점점 내 눈앞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를 분명 알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화살이 내 몸을 관통해도 여기서 또다시 일어날 것. 그러나 내 예상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뒤에서 달려 나온 누군가가 칼로 화살을 쳐낸 것. 그리 누군가가 다름 아닌 김통정이었다. 다시 한 번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나도 그렇고 지슬도 역시 그 자리에서 몸이 딱 굳고 말았다.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보내선 아니 되겠군.”

김통정의 한마디에 나와 지슬을 감싼 건 창칼이 아니라 오랏줄이었다. 팔다리 심지어 목까지 숨만 겨우 내쉴 정도로 꽉 묶어두었다. 성주청까지 그대로 압송되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장군도 같은 모양새였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있던 그 자리에 묻지도 못 한 채 그대로 뒤야만 했다. 대신 우리 등 뒤로 까마귀들의 울음이 하늘을 찌를 뿐이었다.

다시 돌아온 성주청,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아주 좁은 옥에 나와 지슬, 대장군까지 세 사람이 들어가고 말았다. 우린 서로 밤새도록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점점 조여오는 듯한 줄에 겨우겨우 숨만 쉬었을 뿐. 제대로 눕지도 못 한 채, 점점 깊어가는 밤의 적막과 서서히 붉게 물드는 일출의 빛을 반쯤 뜬눈으로 보았다. 하루가 지나 이틀, 사나흘이 흐르도록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먹지도 못 한 채 같은 자세에서 같은 바깥 풍경만 보았다. 간간이 관리하는 군사들이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그 역시 어떤 말도 걸지 않고 창대로 옆구리를 몇 번 찔러보고는 돌아가곤 했다. 메말라가는 입술,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팔다리, 코끝을 스치는 썩은 내보다 더 내 숨통을 조이는 건, 좀처럼 깨지지 않은 침묵의 연속이었다. 거기다가 서로 머리카락 한 올 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시선조차도 나누지 않은 지금의 상태였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도대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면 대장군 저자는 선량한 탐라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던 말인지. 묻고 싶은 말들이 무수했지만 내 입 밖

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침묵으로 며칠밤을 더 지새웠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침조차도 말라버렸을 때, 옥문이 갑자기 열렸다. 군사들은 바가지에 담아온 누렇게 뜬 물을 얼굴로 뿌렸다. 이마저도 우리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헛바닥을 내밀어 한 방울이라도 적시려고 했다. 군사들은 별다른 말없이 바깥으로 끌어냈다. 휘청거리면서 계속 주저앉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키며 어디론가 이끌었다.

금세 성주청 바깥으로 나왔다. 그 사이 잠깐잠깐 살펴봤는데, 성안에 백성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간간이 노인과 갓난아이까지는 보였지만, 좀처럼 젊은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곳곳에 빈집들만 가득했고 오히려 군사들이 더 많아 보였다. 어쩌다가 성안이 웅성했는지 그 의문점은, 거의 반나절을 걸어서 도착한 이곳에서 서서히 풀려나갔다.

지슬의 고향 마을과 가까운 탐라 서쪽이었는데, 바닷가가 아니라 산과 조금은 가까운 지대였다. 여느 산보다 가파른 흙길을 오르고 또 오르다보니, 그 속에 너른 땅과 한쪽으로 밀어놓은 흙더미가 보였다. 그와 함께 온몸에 흙투성이인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 한 채, 각자 흙과 돌을 나르고 있었고 뒤에서 군사 몇몇이 지키는 중이었다.

“주군께서 네놈들의 혼까지 불사를 충정심의 기회를 주셨노라. 여기서는 허튼 수작은 조금이라도 보여선 안 될 것이야!”

팔다리, 목까지 꽉 조였던 오랏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대신 발길질 한 번에 먼저 움직이고 있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낮은 사람이 건네주는 돌덩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지슬과 대장군은 나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따로 기구가 주어진 건 아니었다, 오로지 맨손 뿐이었다. 거기서 이따금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면, 군사들의 가차 없는 발길

질이 이어졌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흙더미는 높아만 갔다.

“빨리 움직여! 빨리, 빨리!”

내 뒤로 군사 한 명이 다가왔다. 느닷없이 채찍으로 등을 후려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몸을 웅크리자 채찍의 강도는 더 거세었고, 이를 보다 못한 양옆에 있는 사람이 서둘러 일으켜줄 정도였다. 다시 돌덩이를 건네받고 옮기기까지 반복했다.

해가 저물어도 군사들은 주변에 햇불을 피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채근했다. 여기서 누구도 입 밖으로 한마디 내뱉지 못하였다. 얼굴과 팔, 다리, 온몸 구석구석 상처로 가득했고 그중엔 그 상처가 시커멓게 변하는데도 아프다는 표현조차 못하였다. 군사들이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가치없이 채찍과 몽둥이, 발길질이 들어왔으니까.

밤이 더욱더 깊어지고 바람까지도 거세게 불어보자, 그제야 작업을 멈출 수 있었다. 딱히 따로 누울 처소가 마련된 건 아니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이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군사들이 어디선가 들고 온 바가지 몇 개를 앞에 던져놓으면, 하루 중 가장 치열하게 달려들었다. 그 바가지 속에는 먹물거리와 마실 물이 조금 있었다. 난 그조차도 움직일 힘이 남아나지 않아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먹읍세.”

눈을 겨우 붙이려고 할 때, 옆 사람이 어깨를 톡 건드렸다. 손끝에 묻은 감자를 입으로 건네주었다. 다른 손에도 감자를 그저 한가득 묻혀 놓을 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이 저절로 향하였다. 입안에는 돌과 흙이 더 많이 씹혔지만 그 감자, 어쩌나 달던지. 메마른 줄만 알았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나왔다. 입안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감자를 천천히 우물거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로 입술을 조금 적셨다. (계속)



소설가 차영민. 1989년생. 부산에서 태어나 현재는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요망진 제주 청년. 푸른 바다와 맞닿은 소박한 마을 '예말'의 한 편의점에 그가 있다. 글쓰기와 밥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한 '알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글을 쓴다. 네이버 '종이비행기', 소소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알바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블로그이자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이십대가 되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경영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나 취미로 시작했던 글쓰기가 어느새 그의 삶이 됐다. 지은 책으로는 청소년소설 『그 녀석의 풍타주』와 『요리누나, 혼자서야 : 제주로 간 젊은 작가의 알바학개론』 등이 있다.

작가 블로그 BLOG.NAVER.COM/CYM8930



지하 420_m의 화산암반층이

18년 동안 거르고 걸러

제주의 맑은 물 중 단 0.08%만 삼다수가 될 수 있대요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우리나라 1등 화산암반수

제주 삼다수